



“최고의 한우·흑우를 찾아라!” 2022년 제2회 제주 한·흑우 경진대회가 열린 28일 서귀포시 표선면 조랑말체험공원에서 관계자들이 심사해 앞서 한우를 살피고 있다. 이상국기자

##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제주 인구 충격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출생아 최저·사망자 최고 전망  
인구 자연감소 7월까지 768명... 지난해 수준 웃돌아  
지난해 인구증가율 0.3%로 13년만에 최저수준 기록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며 올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사망자 수는 고령화까지 더해지며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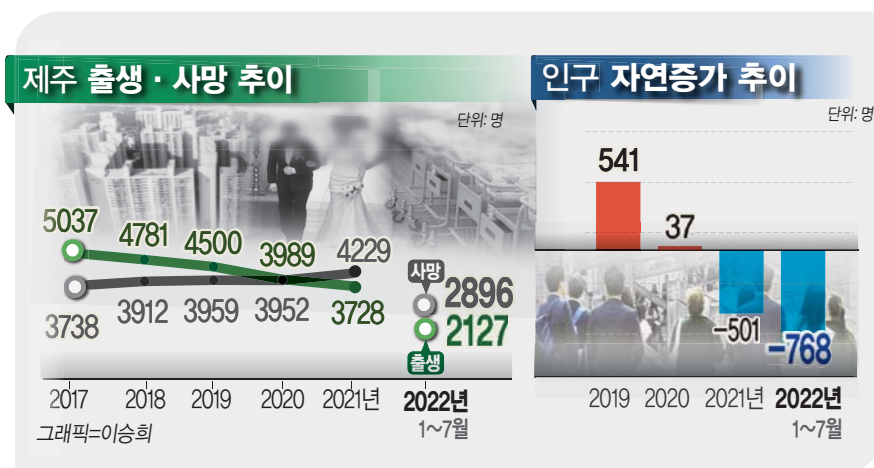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했던 제주도는 올해는 그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주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 속에서도 주민등록인구는 줄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라면 인구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7만6759명으로 전년보다 0.3% 늘었는데, 이는 2008년(0.2%) 이후 13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28일 ‘통계청의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제주지역 출생

아 수는 2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감소했다. 1월에만 0.4% 증가했을 뿐 2월부터는 줄곧 감소해 현재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3728명)보다 적거나 비슷한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 감소는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는 결혼을 미루기도 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연간 혼인 건수는 코로나 발생 첫 해인 2020년 2981건으로 1년 전보다 11.2% 줄며 사상 처음 3000건을 밑돌았고, 2021년에는 2661건으로 10.7% 줄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늘었는데 지난해 해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 감소와는 달리 도내 사망자 수는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6% 증가한 28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4229명으로 사상 처음 4000명을 넘겼는데, 7월까지 사망자 수가 월평균 4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501명 자연감소했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 확대돼 7월까지 768명이 자연감소해 2년 연속 자연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2017년만 해도 1299명이었으나 2021년

엔 3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자연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 1년전보다 14.6% 줄며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던 도내 이혼건수는 올해는 7월까지 89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3% 늘었다.

한편 올들어 8월까지 도내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295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늘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163**  
잠정 집계 28일 <17시 기준> **누적 33만3418**

## 4·3 생존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연기

제주4·3위원회 보상금 지급 분과위 27일 회의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판정 심도있는 논의 필요”

4·3사건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이 연기됐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보상금 지급 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4·3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결정을 연기했다.

4·3위원회 김종민 위원장은 “후유장애인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는 제주4·3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 등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들 84명 중 일부 후유장애인의 장애 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급 결정을 미뤘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차 지급 대상자 2100여명에게 연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차 신청대상자 2117명 중 186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접수 시작 3개월 만에 88% 절차를 마쳤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보상금 결정이 확정되는대로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제주도는 연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1~2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첫 지급 대상자인 생존희생자에 대한 지급 심사가 연기되면서 올해 보상금 지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일정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생존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4·3 중앙위원회 회의는 자료 보완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10월 중에는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알림**

2022 JDC와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 2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는 JDC와 함께 올해 ‘청소년 캠프’를 총 4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2차 **10월 2일(월) 오후 1시~오후 5시**  
3차 10월 9일(일)  
4차 10월 16일(일)

▶대상: **도내 초·중·고 (4-6), 중학생 (1-2)**

▶모집 인원: **각 20명내외** (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

▶신청 기간: **9월 30일까지**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briighth@naver.com)**  
※사석·이름/학교/학년/연락처 기입  
※선착순 접수인만큼 접수 후 즉 확인 전화 요망

▶교육 내용: **메타버스 안에서 기자 체험**

▶문의: **010-4369-3011**

**50만 시민의 벗** 제주 시민

Citizen's friend, Jeju city

일터 삶터가 행복한 안전복지도시

함께 준비하는 미래도시

민생이 해결되는 경제도시

자연과 상생하는 환경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사람이 즐거운 문화관광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eju 제주시**